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정보공유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ublic Library-Mediated Information Sharing on the Construction of Social Capital

이 승 민 (Seungmin Lee)**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연구방법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각 개인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가 높고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높을수록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도와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는 공공도서관 이용을 매개로 했을 때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각 개인의 구조적, 관계적 사회자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한 정보공유가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이용 및 정보의 공유가 개인적인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information sharing through the use of public libraries on the construction and consolidation of social capital of individuals. Through the survey targeting public library users, it was identified that the frequency of public library use and the participation of public library programs have positive effect on the recognition of information sharing and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shared. In addition, information sharing among people became more active when public libraries mediate their information activities. This public library-mediated information sharing positively affects the construction of structural and relational social capital. In contrast, it does not have significant meaning on the construction of cognitive social capital, which means that information sharing and the use of public library relatively concentrate on satisfying personal information needs.

키워드: 공공도서관, 정보공유, 구조적 사회자본, 인지적 사회자본, 관계적 사회자본
Public Library, Information Sharing, Structural Social Capital, Cognitive Social Capital, Relational Social Capital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논문접수일자: 2018년 10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11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4): 27-49,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4.027>)

1. 서론

도서관은 개체화된 정보자원의 입수 및 이에 기반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활용되어 왔다. 이에 사람들은 도서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환경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활동을 행해 왔다. 따라서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정보활동의 중심축 혹은 정보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매개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 및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까지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웹 기반의 포털사이트 및 검색엔진 등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에서 비롯된 정보환경의 변화는 도서관의 근본적 기능인 정보의 입수 및 활용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계 형성까지도 근본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정보의 활용이 자리하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또한 정보의 활용과 공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적인 측면은 결국 각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자본의 형성 과정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의 사회자본은 그 개념이 진화하여 지식 및 정보의 공유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제안되기도 하였으며,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인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Davenport et al. 2003; Davenport and Snyder 2005; Ginman 2003; Widén-Wulff and Ginman 2004).

반면, 웹 기반의 정보활용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사회자본의 유형인 결속형, 연결형의 구분이 더 커지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Davenport and Snyder 2005; Hsu et al. 2007), 웹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 및 사회적 관계의 신뢰성 및 지속성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유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공유 및 사회자본 형성 측면에서의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사회자본 형성,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의 공유를 논하는 연구 역시 다수 수행되어 왔다(박성우, 장우권 2009; 이승민 2016; Johnson 2012). 사회자본의 형성과 정보의 공유는 상호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공공도서관 역시 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측면에서 사회자본 및 정보공유를 함께 다루고 이들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논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사람들의 사회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보의 공유는 사회적인 관계에 기반하는 것으로 그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정보공유가 갖는 의미 및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의 공유가 다양한 유형의 사회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공도서관 이용을 매개로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의 사회적 공유 및 공공도서관의 역할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과 문화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기준 및 법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01)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사회적 격차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자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보적 사명에 기반해서,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정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우리는 정보의 폭발을 경험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오히려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보요구를 갖게 되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생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보 및 정보접근 경로를 상호간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전체적인 정보수준을 높이

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은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한 집단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정보의 공유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동적이고 복잡한 프로세스이며, 또한 공유에 참여하는 각 개인들의 고유한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Case 2006; Tötterman and Widén-Wulff 2006, 2). 따라서 정보의 공유 과정에서는 동일한 정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가 생성될 수도 있고, 공유되는 방식 혹은 프로세스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각 개인의 인식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맥락에 맞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Wasko and Faraj(2005)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생성 및 학습은 기존의 정보를 상호간에 교환하고 조합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며,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lavi and Leidner(2001)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받은 정보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견해를 생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Talja(2002)는 연구자들 사이의 협동적인 정보 행태가 정보공유에 있어서 학술적인 차이를 양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연구자들 사이에 정보가 많이 공유될수록 보다 많은 양질의 정보가 생성되고, 이들이 다시 새로운 정보 생산을 위해 공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와는 다소 다르게, Huotari and Chatman(2001)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보공유를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내에서 교수들의 내부적인 정보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의 이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정보의 공유는 단순히 정보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될 수 있으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는 웹 기반의 네트워크로 활용되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의 공유 역시 오프라인보다는 웹 상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 정보 및 정보공유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웹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보의 측면 역시 웹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 및 이를 통한 정보의 공유도 웹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웹 상에서의 정보공유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혹은 정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Chen and Hung 2010; Chiu, Hsu and Wang 2006; Hsu et al. 2007).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정보공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정보공유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유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 사회자본

사회자본의 개념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인 네트워크 구조에 기반해서 생성되는 무형의 자본으로 설명되고 있다(Tötterman and Widén-Wulff 2007, 3). 사회자본은 다른 유형의 자본들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별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중단되면 사회자본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소멸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Adler and Kwon 2002). 이와 함께, 사회자본의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의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Hoffman, Hoelscher and Sherif 2005),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협동적인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집단활동에 있어서 보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Coleman 1988; Nahapiet and Choshal 1998).

이와 같이, 사회자본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그 적용되는 측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결형 사회자본을 들 수 있다. 연결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은 특정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외부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을 의미하는 반면(Burt 2000),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은 사회적 단

위 내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Coleman 1988; Putnam 2000).

이외에도, 사회자본은 크게 거시적, 중간적, 미시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시적 관점(macro level)에서의 사회자본은 특정 지역에 기반한 사회학적 혹은 정치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Putnam 2000), 중간적 관점(meso level)은 특정 조직 단위 내에서의 정보 및 자원 공유 등과 같은 조직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Tsai and Ghoshal 1998). 반면, 미시적 관점(micro level)에서의 사회자본은 개인의 경력이나 상황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다(Burt 2000; Lin 1999; Lin 2003).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현재 사회자본 형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사회자본은 구조적, 인식적, 관계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은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구조 혹은 특성이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사회자본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네트워크는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경로로 설명할 수 있다(Adler and Kwon 2002).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의 개인들은 상호간에 신뢰를 형성하며 공통의 규범을 형성하고 이를 따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Coleman 1988). 구조적 차원에서의 사회자본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적 유대관계와 중심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로 밀접한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며,

중심성은 관계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Chang and Chuang 2011; Leana and van Buren 1999).

인식적 차원(cognitive dimension)의 사회자본은 지적 자본과 같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형성의 주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의미하는데(Chow and Chan 2008; Wasko and Faraj 2005), 입수한 정보와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정도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인식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사용하는 공통 언어 및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통의 목표라는 두 가지 세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Chiu, Hsu and Wang 2006; Hazleton and Kennan 2000; Nahapiet and Ghoshal 1998).

관계적 차원(relational dimension)의 사회자본은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과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상호간에 교류를 할 때 형성되는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며(Chow and Chan 2008), 이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호혜성이라는 세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뢰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때 상호간에 발생하는 신뢰의 정도를 의미하며(Chen and Hung 2010; Hsu et al. 2007), 호혜성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상호간에 호의를 베풀거나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정도를 의미한다(Wasko and Faraj 2005).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유형 혹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정보 및 정보의 공유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가 각 유형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따라서 정보공유 측면에서의 사회자본인 구조적, 인식적, 관계적 유형의 사회자본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공유를 수행 혹은 지원하는데 있어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각 개인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매개적인 영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변수 설정

현재 사회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사회자본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사회자본이 커뮤니티나 사회적 수준에서 나타내는 현상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Knorringa and Staveren 2006; Tsai and ghoshal 1998). 하지만 사회자본은 각기 다른 수준에서 적용되는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공유 행태를 중심으로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공유를 사람들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 및 가치 교환의 측면에서 정의하였으며, 정보가 공유되는 행태 및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정보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은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자본으로 정의하였으며,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구조적, 인식적, 관계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 유형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반면,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와 이를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공공도서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이용 행태에 따라 정보공유의 방식과 내용, 이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유형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공공도서관의 이용 행태,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보적, 사회적 인식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독립변수이자 정보의 공유와 사회자본의 형성을 매개하는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공유 행태를 분석하고 이것이 각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항목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식정보의 공유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Adler and Kwon 2002; Chang and Chuang 2011; Hazleton and Kennan 2000), 구조적, 인식적,

관계적 차원 각각의 핵심적인 특성들을 반영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 항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구통계적 항목을 통해 설문 참여자에 대한 일반사항을 분석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 이용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사람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 이용 목적 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공공도서관 이용자들 사이에 정보의 교류 및 정보교환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넷째, 사람들 사이의 관계 및 이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각 유형의 사회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설문조사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설문의 대상에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하였다. 이들 이용자 계층은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주로 개인적인 학습을 위한 열람실의 이용으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20대 이상의 공공도서관 일반 이용자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2018년 8월 10일~14일 동안 5일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수집된 총 300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정보공유 및 사회자본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하였다.

〈표 1〉 설문 항목 구성

구분	항목	문항 수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가계수입	4
공공도서관 이용	공공도서관 방문 빈도	1
	공공도서관 이용 방식	1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1
	공동도서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정보 유형	1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1
	공공도서관의 정보적, 사회적 중요성 인식 정도	2
정보공유 행태	정보공유의 사회적, 정보적 효용성 인식 정도	2
	정보공유 의도 정도	1
	정보공유를 통한 만족감 정도	1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정도	1
	정보공유의 방식	1
	사회자본	구조적 사회자본
인지적 사회자본	사회적 규범 인식	2
	공유된 커뮤니케이션 정도	1
	공유된 비전의 인식 정도	2
	관계적 사회자본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한 신뢰 정도
	커뮤니티에 대한 호혜 정도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 117명(39.0%), 여자 183명(61.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는 30대가 106명(3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대졸이 158명(52.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 연 평균 가계 수입은 대체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한 결과, 복수응답 항목을 제외한 총 23개 항목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60이며,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적 분석과 공공도서관 이용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장자료의 확충,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 운영, 정보격차 해소, 정보서비스 제공 등 커뮤니티의 정보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또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사람들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표 2〉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17	39.0
	여성	183	61.0
계		300	100.0
연령	20대	89	29.7
	30대	106	35.3
	40대	68	22.7
	50대	30	10.0
	60대 이상	7	2.3
계		300	100.0
학력	고졸	57	19.0
	전문대졸	43	14.3
	대학 재학	29	9.7
	대졸	158	52.7
	석사	10	3.3
	박사 이상	3	1.0
계		300	100.0
연 평균 가계수입	2,000만원 이하	50	16.7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94	31.3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77	25.7
	6,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53	17.7
	8,000만원 이상	26	8.7
계		300	100.0

〈표 3〉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이용 목적	자료이용 및 대출	공공도서관 시설 이용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정보검색	지역사회 정보 입수	기타
빈도 (N)	221	109	36	144	12	9
비율 (%)	41.6	20.5	6.8	27.1	2.2	1.6

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이용과 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인터넷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시설 이용과 정보 검색이 각각 20.5%와 27.1%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공공도서관은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의 정보 입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주된 이용 목적 또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의 정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이용 행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과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보공유와 사회자본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포함한) 공공도

서관 이용 빈도, 공공도서관 이용 시 온라인 방식 선호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를 요인으로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사람들의 교육수준($r=.313, p<0.01$)과 연평균 가계수입($r=.245, p<0.01$)은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가계수입이 높은 계층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의 참여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교육수준($r=.117, p<0.05$), 가계수입($r=.162, p<0.01$)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설문 응답자 가운데 176명(58.7%)이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홈페이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온라인 방식(64명, 21.3%)에 비해 오프라인 방식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과 사람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및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있어 사람들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격차와는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

〈표 4〉 인구통계적 특성과 공공도서관 이용과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수입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Pearson 상관	-.096	.037	.313**	.245**
	유의확률 (양측)	.095	.520	.000	.000
	N	300	300	300	300
온라인 선호도	Pearson 상관	-.109	.054	-.027	-.056
	유의확률 (양측)	.059	.347	.642	.338
	N	300	300	300	300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Pearson 상관	-.127*	.015	.174**	.135*
	유의확률 (양측)	.028	.793	.002	.020
	N	300	300	300	300
공공도서관 인식도	Pearson 상관	-.131*	.032	.117*	.162**
	유의확률 (양측)	.023	.580	.042	.005
	N	300	300	300	300

** p<0.01, * p<0.05

보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도서관의 대명제와는 달리,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보다 활발하게 이용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보적 소외계층에게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2 정보공유와 사회자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정보공유는 사람들 사이의 개인적, 사회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의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도 인식되고 있다.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신뢰, 호혜성, 규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환경에서는

사람들의 정보활용 및 정보공유가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는 각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반대로 사회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정보를 매개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웹 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정보환경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를 포함한 정보의 공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교류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중추적인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와 각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 사이에 상호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표 5〉 참조).

〈표 5〉 정보공유와 사회자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정보공유 유용성	정보공유 의향	정보공유 만족감	공유 정보 신뢰도	정보공유 인식도
사회적 관계형성 (구조적)	Pearson 상관	.321**	.243**	.199**	.477**	.48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1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사회적 규범 인식 (구조적)	Pearson 상관	.335**	.395**	.337**	.411**	.463**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커뮤니티 비전 공유 (인지적)	Pearson 상관	.329**	.318**	.352**	.369**	.397**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커뮤니케이션 정도 (인지적)	Pearson 상관	.007	.148*	.095	.161**	.089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커뮤니티 신뢰 (관계적)	Pearson 상관	.489**	.388**	.350**	.537**	.59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커뮤니티 호혜 (관계적)	Pearson 상관	.376**	.386**	.367**	.401**	.476**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 p<0.01, * p<0.05

분석 결과,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와 각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사회자본 등 각 유형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정보공유의 행태와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공유되는 정보가 많을수록 사람들의 사회자본 형성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구조적 사회자본과 관계적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성 및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형성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사회자본이 풍부

한 사람들은 개인의 사회자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자본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유지, 강화되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 가운데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정도 및 효용성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향($r=.148, p<0.05$), 공유되는 정보의 신뢰성($r=.161, p<0.01$)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정보공유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정보공유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지, 정보공유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등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유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정보공유의 과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정보공유를 통해 성취감 및 만족감 향상, 타인을 돕는다는 호혜성,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 형성 등 구조적,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사회자본이 생성, 유지 및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커뮤니티가 지니고 있는 공통된 목표 혹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등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는 정보의 공유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보의 공유는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각 개인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환경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하는 현재의 정보 환경에서는 정보를 입수, 활용,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공공도서관이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정보공유와 사회자본 형성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보환경에서는 정보의 공유를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공공도서관 이용을 매개로 한 정보공유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보공유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사람들의 정

보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이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이용을 매개로 한 정보의 공유와 사회자본 형성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설정한 독립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적용하였으며, 사회자본의 형성에 공공도서관의 이용 및 정보공유가 미치는 영향을 두 단계의 모델로 설정하였다. 즉, 1단계 모델 I의 독립변수를 공공도서관 이용, 2단계 모델 II의 독립변수를 공공도서관 이용과 정보공유를 결합한 모델로 설정하고,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사회자본의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이용 및 정보공유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모델 설정 중 공공도서관 이용을 1단계 모델로 설정한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람들의 정보공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며, 2단계 모델에서는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매개로 한 정보공유가 일반적인 정보공유와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정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사회자본의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1 구조적 사회자본 형성

구조적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사회자본을 의미하며, 따라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 사이에 신뢰, 규범 등이 형

성되고 이를 따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사회자본에서는 공동의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유대관계의 형성 및 이의 지속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규범 인식을 요인으로 하여 정보공유가 구조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는 각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정보공유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정보적 네트워크의 형성에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를 독립변수이자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이용이 정보의 공유와 사회자본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하였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Model I에서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운데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t=2.002, p<0.05$),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t=5.973, p<0.05$),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도($t=2.724, p<0.01$) 등은 모두 구조적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에 투입된 변수에 정보공유 관련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Model II에서는 Model I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던 변수 중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t=2.193, p<0.05$),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t=5.622, p<0.01$)는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유 관련 변수 가운데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t=5.337, p<0.01$) 및 정보의 공유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t=3.637,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 5>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미한

<표 6> 구조적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variable	Model I			Model II		
	B	beta	t	B	beta	t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105	.123	2.002*	.104	.122	2.193*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314	.344	5.973**	.270	.296	5.622**
공공도서관 인식도	.185	.162	2.724**	-.066	-.058	-.924
정보공유 유용성				.093	.071	1.252
정보공유 의향				-5.216	.000	-.001
정보공유 만족감				-.109	-.085	-1.431
정보공유 신뢰도				.440	.340	5.337**
정보공유 인식도				.314	.239	3.637**
constant		1.418			.275	
F		35.427**			22.829**	
adjusted R ²		.257			.397	
R ² change		.264			.150	

* p<0.05, ** p<0.01

결과로 나타난 정보공유의 유용성, 정보공유의향, 정보공유를 통한 만족감 등은 공공도서관 이용을 매개로 한 구조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이를 통해 자신의 정보요구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의 공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보공유로 한정되는 것이며, 공유되는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보공유의 범위 확장 등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매개로 하는 정보공유 환경에서는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입수하거나 공유하는 정보는 개인의 정보요구를 해결하거나 정보공유를 통해 개인의 삶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및 정보의 공유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지속, 강화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이를 통한 유대관계가 형성 및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보공유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개인의 사회자본 확

충뿐만 아니라 집단의 사회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3.2 인지적 사회자본 형성

인지적 사회자본은 특정 조직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공유된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사회자본이며, 정보와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람들 사이의 공유된 비전 및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로 설정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이용을 매개로 한 정보공유가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7〉 참조).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Model I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운데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는 사회자본의 유형 중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804, p<0.01$), 공공도서관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383, p<0.01$).

모델 II에서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가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t=4.060, p<0.01$), 정보공유 관련 변수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t=2.098, p<0.05$),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의 신뢰도($t=2.708, p<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는 커뮤니티의 공유된 비전이나 사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지적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variable	Model I			Model II		
	B	beta	t	B	beta	t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12	-.017	-.264	-.030	-.044	-.723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169	.232	3.804**	.171	.235	4.060**
공공도서관 인식도	.252	.277	4.383**	.052	.057	.827
정보공유 유용성				.036	.035	.554
정보공유 의향				.061	.066	1.081
정보공유 만족감				.140	.137	2.098*
정보공유 신뢰도				.213	.188	2.708**
정보공유 인식도				.088	.083	1.156
constant		2.163			.820	
F		20.869			13.361	
adjusted R ²		.166			.271	
R ² change		.175			.119	

* p<0.05, ** p<0.01

정보공유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 사회자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그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및 이를 통한 개인의 성취감과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공유된 목적이나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커뮤니티의 공유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것과는 달리(〈표 5〉 참조),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상호간에 인식을 공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그 신뢰도가 높으며, 이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공유된 비전과 목적을 보다 많이 인지하게 함으로써 커뮤니티의 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프로그램이나 강좌에의 참여 등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가 높다 하더라도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인 정보 입수나 검색의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현상에 비추어 보면(〈표 3〉 참조),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람들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결국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3.3 관계적 사회자본

관계적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정체성 및 상호간에 존재하는 호혜성에 기반해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유형이다. 따라서 이는 사람들 사이의 호혜성 측면에서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의 참여,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규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의 발전과 관련된 활동에의 참여를 관계적 사회자본의 요인으로 설정하고, 정보공유가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호혜성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등 구조적,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을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측면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신뢰 및 상호호혜성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표 8〉 참조).

분석 결과, Model I의 공공도서관 이용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t=3.598, p<0.01$),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t=3.271, p<0.01$),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도($t=3.121, p<0.01$) 등이 모두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공유 관련 변수를 투입한 Model II에서는 Model I의 변수 중 공공도서관 인식도를 제외한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t=3.453, p<0.01$),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t=3.247, p<0.01$)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정보공유 관련 변수 가운데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향($t=2.139, p<0.05$),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도($t=2.861, p<0.01$)가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관계적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variable	Model I			Model II		
	B	beta	t	B	beta	t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161	.224	3.598**	.142	.198	3.453**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147	.192	3.271**	.135	.177	3.247**
공공도서관 인식도	.181	.190	3.121**	-.054	-.057	-.866
정보공유 유용성				.076	.069	1.180
정보공유 의향				.119	.122	2.139*
정보공유 만족감				.115	.107	1.737
정보공유 신뢰도				.075	.069	1.041
정보공유 인식도				.215	.194	2.861**
constant		1.970			.519	
F		30.459			19.274	
adjusted R ²		.228			.374	
R ² change		.236			.138	

* p<0.05, ** p<0.01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정보공유가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표 5〉 참조), 향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향 및 개인의 정보활동에 있어서의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도가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매개로 하였을 경우에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과는 달리,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공유된 정보의 유용성이나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등은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 외부의 요인들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이용 자체는 호혜적인 측면에서의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큰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4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정보공유와 사회자본 형성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개인적 정보공유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전반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매개로 한 정보의 공유는 각 유형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조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 이용,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등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정보의 공유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수

록 보다 활발하게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보의 공유가 개인의 정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정보의 공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정보공유에 비해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줌으로써 정보공유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다 확장하고, 이를 통해 구조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과는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의 공유된 인식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공유된 인식, 공동의 목표 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인지적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계적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정보공유와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정보공유 모두가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가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매개로 했을 때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

는 프로그램이나 강좌 등에의 참여가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집단적인 호혜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4 정보공유 기반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재고찰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할수록 정보공유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강좌에의 참여가 정보공유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참여가 정보공유에서의 성취감 혹은 만족감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는 프로그램 혹은 강좌에의 참여 자체는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보다는 정보 입수에 중점을 두는 활동이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개인의 정보입수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활용,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사람들 사이의 정보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시켜 공공도서관이 다루지 못하는 정보도 입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공유를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 측면에서

는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사회자본에 따라 그 영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해서도 공유된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의 공유가 개인의 정보활동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구조적 사회자본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개인의 성취감과 만족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공유된 가치로 형성되는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 및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적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람들이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향을 높여주고 있으며, 이는 정보공유의 효용성이나 이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 관계 및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 및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유의 장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검색엔진, 포털사이트 등과 같은 기계적인 처리를 통한 정보의 활용과는 달리,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정보환경적 고려, 커뮤니티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정보적 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다 활성화되면, 현재의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사회의 전체적인 정보수준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자본을 형성, 강화하는 기능으로 직결될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이 사람들의 진화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자본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를 포함한 도서관 구성원 상호간에 유형, 무형의 모든 형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내용적, 형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정보의 허브로서, 그리고 커뮤니티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진화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결론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의 정보활동을 지원해주는 정보활동의 중심축 혹은 정보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 및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까지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의 사회자본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정보의 활용 및 공유와 공공도서관의 상호관계, 그리고 사회자본의 형성에 공공도서관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공공도서관 측면에서 사회자본 및 정보공유를 함께 다루고 이들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논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정보의 공유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강화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정보공유와 사회자본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사회자본 등 각 유형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정보공유의 행태와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공유되는 정보가 많을수록 사람들의 사회자본 형성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보의 공유는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정보환경에서는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경로에 대한 공유가 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보를 입수, 활용,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공공도서관이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정보공유와 사회자본 형성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매개로 한 정보공유가 각 유형의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적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및 정보

의 공유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을 매개로 하여 정보의 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지속, 강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이를 통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유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구조적 사회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집단의 사회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지적 사회자본의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높을수록 사람들의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 및 강화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는 커뮤니티의 공유된 비전이나 사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 및 강화에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정보공유를 활성화시키고 공유된 정보가 개인의 정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매개로 했을 때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강좌 등에의 참여가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집단적인 호혜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는 커뮤니티의

공유된 비전이나 사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이용 자체는 인지적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큰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커뮤니티의 호혜적인 측면에서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 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과는 달리,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공유된 정보의 유용성이나 공유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등은 관계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 외부의 요인들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은 정보를 매개로 한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호혜적인 활동 등 정보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람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여전히 정보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활동 등으로는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티의 공유된 목표 혹은 발전에 대한 인식도는 공공도서관의 이용과는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공공도서관이 전통적인 정보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공유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책무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고유한 사회적 역할과 목적을 지니고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정보가 폭발

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허브라는 전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자본의 형성 역시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정보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풍부한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면, 공공도서관은 더 이상 정보에 집중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적, 정보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포괄적인 범주에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박성우, 장우권. 2009. 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 215-231.
- [2] 이승민. 2016.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29-50.
- [3] Adler, P. S. and Kwon, S. W. 2002. "Social Capital: Props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 [4] Alavi, M. and Leidner, D. E. 2001. "Review: Knowledge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Conceptual Foundations and Research Issues." *MIS Quarterly*, 25(1): 107-136.
- [5] Burt, R. S. 2000.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In E.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pp. 255-285) Boston: Butterworth Heinemann.
- [6] Chang, H. H. and Chuang, S. S. 2011. "Social Capital and Individual Motivations on Knowledge Sharing: Participant Involvement as a Moderator." *Information & Management*, 48(1): 9-18.
- [7] Case, D. O. 2006. "Information Behaviour."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0: 293-328.
- [8] Chen, C. J. and Hung, S. W. 2010. "To Give or to Receive? Factors Influencing Members Knowledge Sharing and Community Promotion in Professional Virtual Communities." *Information & Management*, 47(4): 226-236.
- [9] Chiu, C. M., Hsu, M. H. and Wang, E. T. G. 2006. "Understanding Knowledge Sharing in Virtual Communities: An Integration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Cognitive Theories." *Decision*

- Support Systems*, 42(3): 1872-1888.
- [10] Chow, W. S. and Chan, L. S. 2008. "Social Network, Social Trust and Shared Goals in Organizational Knowledge Sharing." *Information & Management*, 45(7): 458-465.
- [11]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 95-120.
- [12] Davenport, E. et al. 2003. "Managing Social Capital as Knowledge Management: Some Specification and Presentation Issues." In *Proceedings of the 66th ASIST Annual Meeting. Humanizing Information Technology: From Ideas to Bits and Back*, 101-108. Information Today, Medford.
- [13] Davenport, E. and Snyder, H. W. 2005. "Managing Social Capital."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9: 517-550.
- [14] Ginman, M. 2003. "Social Capital as a Communicative Paradigm." *Health Informatics Journal*, 9(1): 57-64.
- [15] Hazleton, V. and Kennan, W. 2000. "Social Capital: Reconceptualizing the Bottom Line." *Corporate Communications*, 5(2): 81-86.
- [16] Hoffman, J. J., Hoelscher, M. L. and Sherif, K. 2005. "Social Capital, Knowledge Management, and Sustained Superior Performance."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9(3): 93-100.
- [17] Hsu, M. H. et al. 2007. "Knowledge Sharing Behavior in Virtual Commun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5(2): 153-169.
- [18] Huotari M. L. and Chatman, E. 2001. "Using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to Explain Organizational Behaviou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3: 351-366.
- [19] Johnson, C. A. 2012. "How Do Public Libraries Create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Library Staff and Patr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1): 52-62.
- [20] Knorringa, P. and Van Staveren, I. 2006. *Social Capital for Industrial Development: Operationalizing the Concept*. Report prepared for COMPID Research Programme, UNIDO, Austria.
- [21] Leana, C. R. and van Buren, H. J. 1999.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Employment Practice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3): 538-555.
- [22] Lin, N. 1999.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467-487.
- [23] Lin, N. 2003.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P.

- [24] Nahapiet, J. and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242-266.
- [25]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26] Talja, S. 2002. "Information Sharing in Academic Communities: Types and Levels of Collaboration in Information Seeking and Use." *New Review of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3: 143-160.
- [27] Tötterman, Anna-Karin and Widén-Wulff, Gunilla. 2007. "What a Social Capital Perspective Can Bring to the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Sharing in a University Context." *Information Research*, 12(4). [online] [cited 2018. 8. 2.]
<<http://www.informationr.net/ir/12-4/colis19.html>>
- [28] Tsai, W. and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2(4): 464-476.
- [29]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online] [cited 2018. 6. 7.]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17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 [30] Wasko, M. M. & Faraj, S. 2005. "Why Should I Share? Examining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Contribution in Electronic Networks of Practice." *MIS Quarterly*, 29(1): 35-57.
- [31] Widén-Wulff, G. and Ginman, M. 2004. "Explaining Knowledge Sharing in Organizations Through the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0(5): 448-45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Park, Seong-Woo and Chang, Woo-Kwon. 2009.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the Social Impact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 215-231.
- [2] Lee, Seungmin. 2016. "A Study o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the Use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29-50.

